

[비자 26Q4 Preview] FY27 첫 가이드스와 부가가치 서비스 성장률 관건, 투자의견 적극 매수 유지



26.10.19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10 월 28 일 발표의 무게는 FY27 첫 전망에 쏠려 있다

비자는 10 월 28 일에 2026 회계연도 4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비자는 전 세계 카드 결제의 거래망을 운영하며, 결제 건수와 금액에 수수료를 받는 사업 구조다.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으니 신용위험이 적고, 소비가 돌아가는 한 매출이 따라 올라오는 회사로 통한다. 이번 분기는 FY26 을 마감하는 분기인 동시에, 다음 1 년치 회사 가이드스(자체 전망)가 처음 제시되는 자리다. 시장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월드컵 특수로 부풀었던 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때, 회사가 어느 정도 눈높이를 제시하는지다.

열두 분기 넘게 이어진 상회 흐름이 이번에도 유지될지가 첫 관문

직전 3 분기 매출은 116 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늘었고, 조정 주당순이익은 3.32 달러를 기록해 시장 평균 전망(컨센서스)을 매출 2.1%, 주당순이익 2.7% 웃돌았다. 분기 최고 매출을 여섯 분기 연속 갈아치웠고, 보수적으로 제시한 뒤 넘어서는 패턴이 열두 분기 넘게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4 분기 순매출 성장률을 두 자릿수 초반의 상단으로 안내했는데, 전년 동기 107 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20 억 달러 안팎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역산한 분기 주당순이익 하한은 3.28 달러 수준이다. 우리는 매출 119 억~122 억 달러, 조정 주당순이익 3.35~3.55 달러를 보고 있다. 현재 집계된 분기 컨센서스 수치는 이미 발표된 3 분기 실적에 머물러 있어, 이번 분기 눈높이는 가이드스 내재치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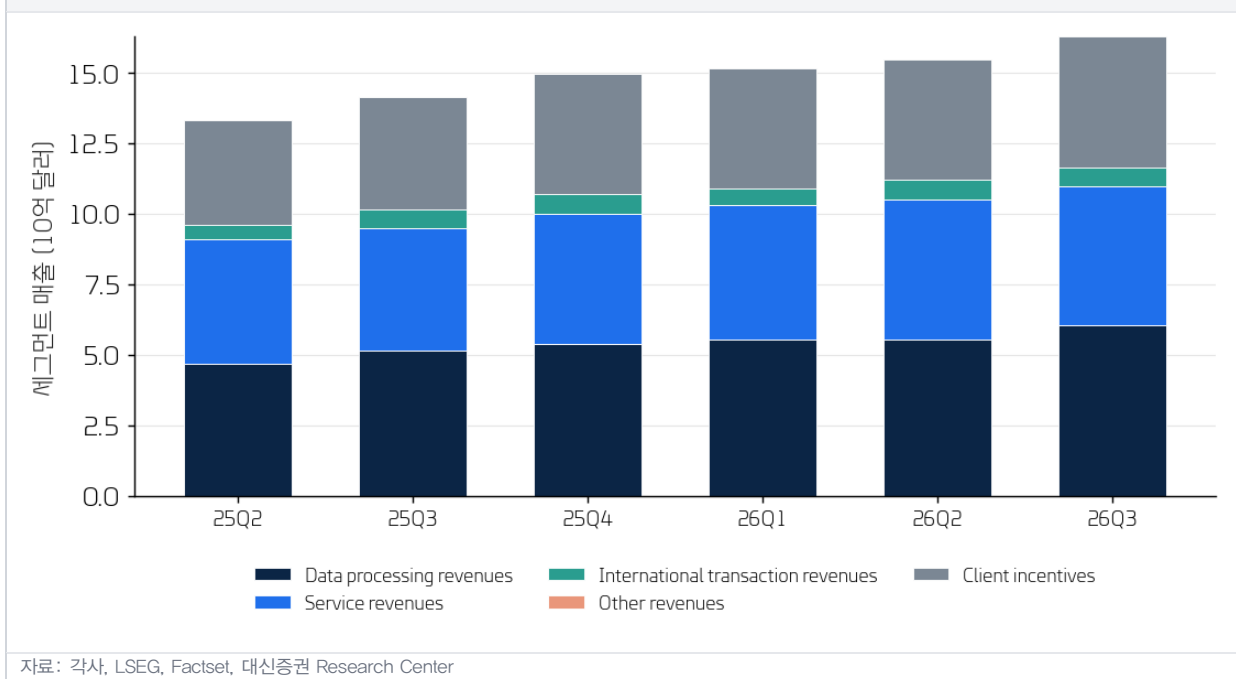
비자 주가와 12 개월 선행 주당순이익 추이



월드컵이 밀어올린 부가서비스 성장률의 착지점이 진짜 변수

직전 분기 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은 38 억 달러로 고정환율 기준 34% 늘며 이 사업의 성장률 최고치를 썼다. 2026 년 월드컵 관련 마케팅 서비스 수요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벤트가 끝나면 성장률이 내려앉는 것이 자연스럽다. 관건은 둔화의 폭이다. Pismo 기반 카드 발행 처리, 스테이블코인 정산, 에이전틱 커머스 같은 구조적 축이 정규화 폭을 얼마나 받쳐주는지가 이번 쿨의 핵심 질문이 될 것으로 본다. 상업·자금이동 솔루션도 고정환율 기준 17% 성장을 이어가며 기업 간 결제와 국경 간 송금 침투를 넓히고 있다. 다만 국제거래 매출은 6% 증가에 그친 반면 국경 간 결제금액은 12% 늘어, 거래당 수익성 격차가 네 분기째 벌어져 있다. 고객 인센티브 지급액이 18% 늘며 순매출 증가율 14%를 앞지르는 구조도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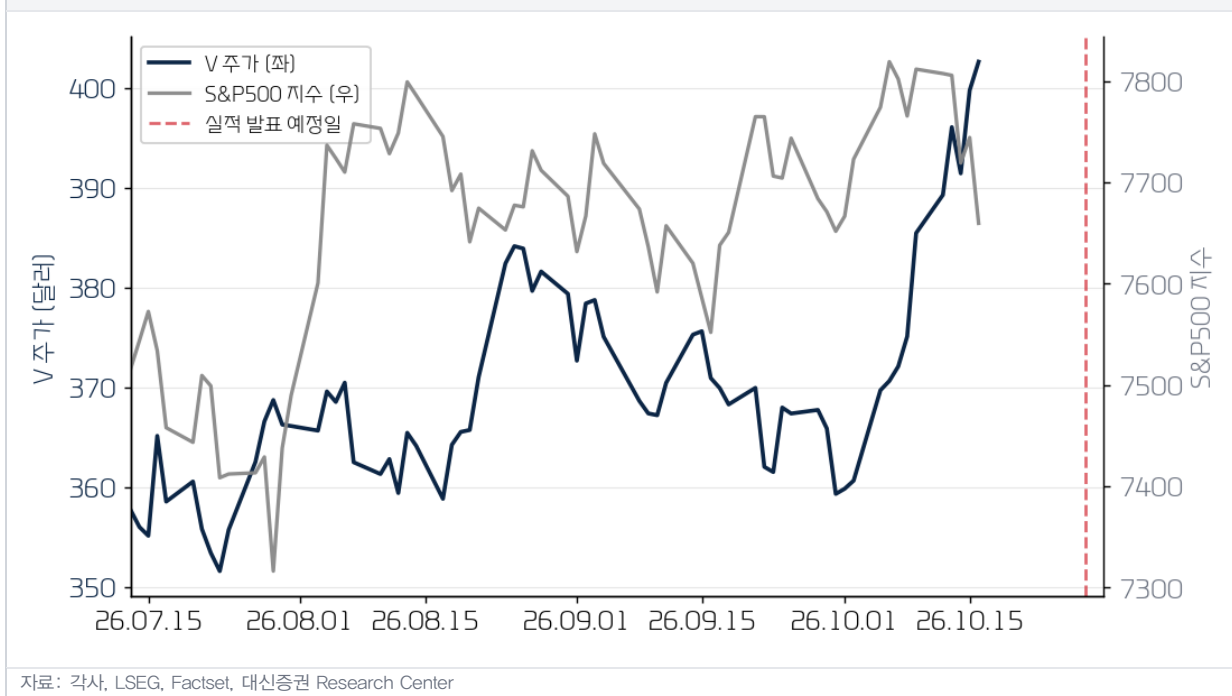
비자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시장은 위를 보되 하방 보험은 남겨뒀다

옵션시장이 반영한 예상 변동폭은 발표 전후 약 5.3%다. 결제망 사업 특성상 큰 폭의 깜짝 숫자가 드문 종목임을 감안하면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며, FY27 첫 전망에 대한 긴장이 가격에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읽는다. 풋/콜 거래량 비율은 0.58 로 상승에 베팅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25 델타 내재변동성 격차는 31 수준으로 하방을 막는 보험 비용이 여전히 비싸게 책정돼 있다. 뉴스 흐름은 우호적인 쪽이다. 10 월 13 일 중국 내 국내 결제 사업 준비 승인을 받았고, Visa Direct 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자금이동이 시범 단계를 지나 정식 서비스로 전환됐다. 한 증권사는 목표주가를 425 달러로 올렸고, 셀사이드 목표주가 중앙값 410 달러는 직전 주가 362.53 달러 대비 13% 내외의 여지를 담고 있다. 12 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 24.8 배는 5 년 평균 26.1 배보다 살짝 낮다.

비자 주가 vs S&P500 — 발표 전 약 90 일



비용 절감의 숫자화가 FY27 눈높이를 좌우한다

3 분기에 발표한 7% 인력 감축은 약 2,600 명 규모이며, 퇴직 관련 비용 5 억 6,300 만 달러는 이미 3 분기에 반영됐다. 이번 분기에는 그 비용 부담이 사라지고 절감 효과가 처음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직 공시되지 않은 연간 절감 규모가 이번에 정량적으로 제시될지가 중기 영업 레버리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반대로 핵심 인력 이탈이나 조직 생산성 저하가 비용 가이드언스에 묻어 나오면 해석이 달라진다.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집단소송 관련 에스프로 추가 예치, 에이전틱 커머스에서 사기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미결 쟁점도 두 분기 연속 질의응답에 등장한 사안이다.

시나리오와 우리 입장

매출이 122 억 달러를 넘고 조정 주당순이익이 3.55 달러에 닿으면서 FY27 매출 성장률을 두 자릿수 초반 이상으로 안내하면, 상회 흐름 연장으로 받아들여져 주가는 예상 변동폭 상단 쪽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다. 가이드언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부가가치 서비스 성장률이 어디서 멈추는지, 그리고 비용 절감 규모가 숫자로 나오는지가 주가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가 된다. 하회하거나 FY27 전망이 보수적으로 제시될 경우, 국경 간 거래의 수익성 격차와 고객 인센티브 부담이 다시 전면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흐름은 견조하다. 세 번에 걸친 가이드언스 상향, 사상 최고 매출 경신, 48 억 9,000 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284 억 달러 잔여 한도까지 이익 궤도와 주주환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발표를 앞둔 현재 투자 의견은 **적극 매수**를 유지한다(확신도 높음).

한눈에 보는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시장 눈높이(컨센서스)	회사 가이드نس	우리가 보는 초점
분기 순매출	분기별 집계 미확보, 가이드نس 내재 120 억 달러 안팎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초반의 상단	119 억~122 억 달러. 전년 107 억 달러 대비 가속 유지 여부
조정 주당순이익	가이드نس 역산 하한 3.28 달러	FY26 기준 10% 중반대의 하단	3.35~3.55 달러. 퇴직비용 소멸 효과가 어디까지 반영되는지
부가가치 서비스 성장률	직전 분기 고정환율 34%에서 둔화 예상	별도 수치 제시 없음	월드컵 효과 소멸 이후의 착지 구간. 20%대 유지 여부
국경 간 거래 수익성	결제금액 12% 성장 지속 전망	환율 가정 외 별도 언급 없음	국제거래 매출 6%와의 격차 축소 여부. 네 분기째 쟁점
인력 감축 절감 규모	미공시	정량 수치 미제시	연간 절감액 공개 여부와 비용 증가율 억제 폭
FY27 첫 가이드نس	두 자릿수 초반 성장 기대	이번 발표에서 최초 제시	보수적 제시 후 상회 패턴 유지 여부가 재평가의 출발점

※ 투자자의견 체계 — 적극 매수 > 매수 > 중립 > 비중축소 > 매도 5 단계. 하우스 뷰의 방향(강제·중립·약세)과
확신도(높음·중간·낮음)를 결합해 부여하며, 목표주가 대비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이 아니다.
상향·유지·하향은 같은 종목 직전 발간물의 등급과 비교한 결과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